

성악 중등부/초등부 1·2, 5·6학년 김 영 지 초당대학교 교수

성숙하고 안정된 발성... 훌륭한 기량 발휘

대체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음악적 끼를 갖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들이 많았다. 1-2학년은 어린 학생들이지만 무대에서 당당한 모습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르는 노래에 놀라웠다. 5-6학년은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안정된 발성으로 훌륭한 기량을 발휘한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자의 소리와 감성에 맞는 곡을 잘 선정하여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등부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누구나 노래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나이라는 무리한 연습보다는 좋은 노래와 음악을 많이 들어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고, 부르기 편한 곡을 선택해 보아 올바른 호흡법과 발성으로 부르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발전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래는 우리 몸이 악기인 만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좋고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현악 김 자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음악성·기본기 탄탄... 음색 다듬는데 더 집중을

어린 연주자들의 깊은 열정과 노력이 담긴 연주를 듣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짧은 시간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은 늘 아쉽고 안타깝다.



올해 현악부 중등부 중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악성과 탄탄한 기본기로 눈에 띄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특히 바이올린 부문에서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보였는데, 자신 있는 태도로 본인의 느낌과 해석을 선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너무 어려운곡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음정, 박자,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하고, 음색을 다듬는데 좀 더 집중한다면 이번엔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호남예술제를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 모든 참가자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어린 연주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피아노 고등부/초등부 5·6학년 서 윤 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전 가능성 엿볼 수 있는 뜻깊은 경연

이번 경연에서는 경연시간 동안 곡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거나, 잦은 실수로 곡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어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좋은 연주를 위해 고민한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피아노를 귀로 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곡에서 작곡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악보의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곡의 특징을 잘 살려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테크니적인 곡일지라도 그저 시끄러운 소리로 치거나 손가락은 열심히 움직이려 하지만 내용이 빠져서 진다면, 청중이 모를 리 없다.



혹시나 실력 발휘를 못 하여 아쉬운 학생이 있다면, 이번 경연 또한 성공적인 다음 경연이나 연주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길 바란다. 연주의 마음가짐이나 조금의 연습 방법의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경연이었고, 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열렬히 응원한다.

한국무용 김 미 숙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혼신의 힘 다해 기량 펼쳐...무용인 많아졌으면

유년시절부터 꿈을 키워왔던 호남예술제가 벌써 올해로 67번째의 대회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호남예술제는 호남의 명실상부 예술의 축제가 권위있는 대회다. 무용계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무용인들이 나처럼 호남예술제를 통하여 무용인의 등용문으로 새로운 이름을 알리고 또 그렇게 기량을 키워 나라의 예술을 무용을 지키는 관문이기도 했다. 비록 많은 팀이 참가하지는 못하였으나 실기의 기량만큼은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보여져 예향 광주의 타고난 끼와 자력을 볼 수 있었다.



예향의 광주에서 무용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도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속에서도 무용의 많은 지도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무용공룡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호남예술제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 문화예술의 꿈을 키우는 인재들이 더욱 많아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문 박 성 천 소설가·광주일보 여론매체부 부국장

세상을 보는 시각,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

올해 작문 분야는 지난해보다 응모 편수가 많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상의 모습들을 글로 표현하려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작문 실력은 고른 편이었지만 학년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었다. 응모작 중에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풍경들이 기발한 상상력과 언어로 표현된 작품이 적지 않았다. 소재와 제재를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려내는 개성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은 반면, 한편으로 지나치게 어른들의 글쓰기 방식을 흉내내려는 작품들도 있었다. 글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만의 언어와 시각으로 그려내는 데서 생명력을 발휘한다. 지나친 과장이나 어른스러운 표현은 오히려 감동과 글맛을 떨어뜨린다. 또한 글을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되고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원고지 쓰는 법을 비롯해 맞춤법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작, 성악 고등부/초등부 3·4학년 김 철 용 목포대학교 교수

고3 발전 큰 수확... 획일화된 선곡은 아쉬움

우선 창작 부분은 참가팀이 적어 아쉬운 면이 있었고, 초등부 3, 4학년의 참가자들은 코로나시기로 인해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다. 아직 초등학생들이지만 성악의 기초인 올바른 자세와 표정 그리고 공명의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곡목 선정의 획일화로 좋은 동요들이 많이 작곡되고 불리워져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등부의 경연에서도 선곡의 획일화가 아쉬웠다. 다양한 곡목들이 많이 보급되고 불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도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기량에 맞는 선곡도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회의 큰 수확이라면 고 3학년생들의 발전을 들 수 있겠다. 전국 어느 대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고 3 재능인들로 클래식 성악계의 미래가 밝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회 참가를 위해 열심히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적극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일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피아노 중등부/초등부 1·2학년 구 재 향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중등부, 음악적 특징·느낌 잘 표현

67회를 맞은 올해 호남예술제 피아노 부문은 특히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무적이었고, 지정곡인 베토벤 소나타 세 곡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베토벤 소나타 32곡은 피아노 전공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레퍼토리지만 이번 기회에 실력이 한 단계 뛰어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꾸준히 피아노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발전시키지 않고 급조한 경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 베토벤 소나타의 음악적인 특징과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은 지도하신 선생님들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피아노 초등부 1, 2학년은 무대에 나올 때 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엽고 기특한지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경쟁이나 성취감에서 벗어나 피아노를 통해 지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과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주 김 능 학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다양한 악기·선곡... 높은 기량 선보인 대회

코로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악중주, 타악중주, 현악중주, 관현악중주 등 많은 분야에서 16개의 팀이 참가한 이번대회는 다양한 악기편성과 다양한 선곡등을 통해서 높은 기량을 선보인 대회였다. 타악기로 구성된 마림바중주라든가 플루트중주, 첼로중주등의 편성과 더불어 교향곡을 자신들의 편성에 맞게 편곡한 관현악중주등이 특징적이었다.



곡의 선정에 있어서는 비발디나 바흐와 같은 바로크시대 작곡가를 비롯해 칼 젠킨스나 피아졸라 등과 같은 현대작곡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되었고 가요나 팝음악을 새롭게 편곡한 곡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다만 자신들의 팀편성에 맞추다보니 전체적인 발란스에 해를 끼친 경우가 있었고 현악중주에서는 고음 중음 저음악기들이 고루 사용되어야하는데 일부 악기들이 빠져서(중음을 맡는 비올라나 저음을 보강하는 더블베이스) 소리의 불균형을 이룬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현대무용 실용무용 김 현 재 조선대학교 교수

기본기·테크닉·호흡... 훌륭한 무대

호남예술제는 호남예술 무용의 역사를 기르는 예술제인 만큼 올해에도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는 참가자가 많았다. 특히 몇몇 중·고등학생 현대무용 참가자들의 기량이 돋보였고 기본기와 테크닉, 호흡을 이용한 무브먼트 연결까지 굉장히 훌륭한 무대를 구사했다. 실용무용 참가자들의 경우 참가인원이 매우 적었으나 다양한 작품 장르의 참여로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었고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표정 구사가 돋보였다.



반면 현대무용 참가자들은 작품해석에 관한 표현이 신체에 머물러 표현이 너무 한정적이었다. 표현예술인 무용에서 기술성에 치우친 테크닉 구성보다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깊이 있는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참가자의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테크닉의 역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소 아쉬웠다. 호남예술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미술 김 영 화 서양화가

수상작·출품작 모두 발전... 진심으로 축하

이번 제67회 호남예술제의 주제는 '가족여행'과 '그림자'이다. 먼저 '가족여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도와 진정성 담긴 표현, 그리고 이를 위한 활발한 색채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그림자'라는 주제는 학생들의 재기념치고 신선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자는 빛을 통해 생겨나는 자연현상임과 동시에 양면성, 어둠, 우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제이다. 모든 참가자들은 주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회화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심사를 함에 있어 특히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상작뿐만 아니라 출품작 모두 전년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준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

관악 김 동 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음정·박자·리듬' 잘 스며들어야 훌륭한 음악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당김, 프레임즈, 비브라토, 악상 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 우리가 흔히 음악의 3요소라 여기는 음정, 박자, 리듬이 균형감 있게 잘 스며들어야 할 때 하나의 훌륭한 음악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곡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몸에 맞는 옷을 입듯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수준의 곡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탕이 되어 음악가들의 예술 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관악기들의 고른 발전도 필요하다. 어떤 관악 분야는 해외 오케스트라 수석을 맡고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야는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끝으로 우리 선배 음악인들은 젊은 연주자들이 더 많은 기회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기회를 부여하도록 힘써야 할 것 같다.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박 재 연 조선대학교 교수

개개인의 음악적 장점 살릴수 있는 선곡 필요

올해 호남예술제 초등부 3-4학년 피아노 부문에서는 총 203명이 열 명 경연을 펼쳤다. 203명 어린 참가자들의 손으로 연주되는 Haydn, Mozart, Beethoven의 소나타는 경연을 위하여 노력해 온 그들의 시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였다. 경연에 대한 긴장감과 높은 의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객석에서 느껴지는 관심도 또한 매우 뜨거웠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큰 실력의 기폭 없이 고른 수준의 경연을 펼쳤으며, 그 간 살아온 음악적 역량을 빈틈없이 보여주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광주 지역 음악교육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지정곡 중 하이든과 모차르트 소나타로 선곡이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정곡 중 한 곡을 선택하는 시기부터 참가자들이 좀 더 개개인의 음악적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숙고가 필요함을 조언하고자 한다.

국악 서 담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초등부 가야금병창·중등부 해금산조 연주 감탄

완연한 봄꽃축제 같은 국악부문 경연이었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음악적 완성도와 표현력 등에서 매우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



특히 어린학생들과 계절에 맞는 선곡은 인상적이었다. 초등부에서는 가야금병창출연자들의 단체능력이 탁월하였으며 개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경연이었다. 가야금산조분야도 숙련된 농현과 리듬을 잘 표현하였고, 중등부의 흐트러짐 없는 해금산조연주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풍물놀이와 호흡이 직접 관련된 성악·관악부문의 참가자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꿈나무를 키워주신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력이 더욱 돋보였던 대회였다.

발레 박 경 속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기초 탄탄히 하는데 정성과 노력 기울이길

무용계에서 4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적으로 대학공부를 비롯한 협회공공 등이 일제히 열리는 콩쿨 시즌인데 특히 호남예술제는 광주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용예술의 확산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호남예술제의 업적은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예술교육에 진리가 있다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과 꾸준한 노력이 필수라는 점이다. 발레 역시 3가지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턴 아웃(Turn Out), 포인트(Point), 풀 업(Pull-Up)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실히 못하면 나쁜 습관은 점점 고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하는데 온 정성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호남예술제 발레 부문 참가자는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한 연령대이므로, 꾸준한 준비 과정, 즉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